현불논단

담마를 시스템화 하라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세상은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중
변화하는 시스템은 살아남는 묘책
불교서 시스템 전환 사례가 '법문'

시대, 문화 맞춰 전달된 불교 사상
시스템 통해 신자 믿음 연결 작용

이젠 가정과 사회서 法을 접하도록
법문의 틀을 점검하고 시스템화해야
가정, 사회 맞는 '법 바코드' 붙이자

세상은 시스템 전쟁 중이다. 지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와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 쟁탈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맞춰 약 처방과 새로운 행동지침이라는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위한 시스템은 시대, 장소, 대상과 내용에 맞게 변화한다. 변화하는 시스템은 살아남기 위한 묘책이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전환한 예로 법문이 있다.

법문은 붓다의 방편적 가르침이다. 방편이란 가장 합법적이고 이치와 방법에 맞는 것이다. 이곳과 저곳, 자신과 타인, 가정과 사회에 모두 유익하고 이익 되는 길은 방편을 통해 열린다.(빠알리 〈율장(Vin)〉 I , 101쪽)

붓다의 법은 이미 널리 오픈돼 있다. 다만 이 내용을 가정과 사회에 맞게 선택해 법 전달 능력을 키워 쉽게와 닿고 이해하기가 쉽고 실천하여 행복을 얻도록 하는 것은 법문하는 자의 몫이다.

미얀마를 예를 들면, 태어나면 요일별로 첫 자음과 동물이름을 갖는다. 일요일은 가루다, 월요일은 호랑이, 화요일은 사자, 수요일은 코끼리, 목요일은 쥐, 금요일은 두더지, 토요일은 용이다. 다만, 수요일은 오후 6시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오후 6시 이전 수요일은 상아있는 코끼리고, 이후는 상아없는 코끼리로, 여덟 방위에 동물을 배대한다. 그래서 절에 불상과 함께 8방위에 상징동물을 배치해 두는데 절을 방문하면 반드시 자신의 탄생 요일과 여덟 방위에 맞춰 꽃공양이나 여타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것은 신자를 체계적으로 믿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또한 일본에서 태어나면 속명을, 살아가면서 법명을, 마지막 임종 후에 장례식에서는 불명 즉, 극락에서 불려줄 이름을 얻게 된다. 일본불교는 이처럼 생애 전체를 세 개의 이름을 갖게 하는 신자와 불교의 연결고리를 찾는 시스템 전통을 갖고 있다.

이 시대에는 각 단체마다 수많은 최적의 매뉴얼을 지니고 있다. 국가, 사회, 기업이나 종교단체, 심지어 병원, 군대나 맥도널드 등에서 매뉴얼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대에 맞는 법의 방편을 시스템화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를 위한 법문의 틀을 재점검하고 매뉴얼을 최적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 대상과 내용과 방법에 최적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신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위해 요청한 법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삼보를 알고 삼보에 대해 배울 기회를 우리 세대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가르침을 주는 것은 법을 주는 것이며 바른 법은 나쁜 신체적, 언어적 행위와 마음을 좋은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와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문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법문과 설법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는 아마존이나 쿠팡의 배달시스템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 바코드를 통해 배분하듯이 불교에서도 법을 잘 배분하여 가정과 사회에 맞는 법 바코드를 붙여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배달할 것인지 명확히 하듯 가르침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책이 분류돼 꽂혀 있는 도서관 시스템처럼 가정과 사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개인과 단체가 바르고 좋고 법다운 마음을 기르고 사용하고 키울 수 있도록 담마(법)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법문도 법문의 주제 배우기, 법문 내용구성하기, 법문의 도표화, 그림화, 법문의 반복적 활용하기로 연결된다. 붓다의 제자로서 법사가 되는 일은 하나의 수행길이다. 수행자로서 법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함께 붓다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진행해야 할 역동적인 불자활동이다.

社 說

한일불교 황금유대, 세계평화 초석

'한일 양국의 불교 친선교류는 양국의 불교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양국의 우호, 나아가서는 아시아 및 세계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확신에 의거하여 더 한 층의 우의를 증진시킨다.'

1977년 10월 15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가 서울에서 만나 양국 불교문화교류의 공식적인 첫 걸음을 떼며 발표한 공동선언문 일부다. 46년의 세월에서 양국 사정에 따른 몇 차례의 대회 연기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불가 상황을 지나 올해로 40번째 교류행사를 마련해 깊은 우호를 확인했다.

두 나라의 불교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꾸준히 나왔다. 2005년엔 일한불교협회가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참회했고, 이로부터 3년 뒤엔 일본 우천사에서 양국이 합동으로 '한국 출신 전몰자 유골송환 위령제'를 봉행하며 유골 101위를 국내로 반환했다. 교류 30주년이 되던 2009년엔 명성왕후의 고향 여주시의 신륵사에서 일본 측의 과거사 반성 내용을 새긴 '인류화합공생기원비'도 제막했다. 모두 세계평화라는 가치에 부합한 결실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와 달리 최근 10여 년간은 서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언제부턴가 대회 개최마저 부담을 느끼는 일본불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탈종교화 시대, 코로나19 이후 삶의 양식이 변화하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본이다. 이럴 때일수록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꾸준한 만남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양국이 합의한 청소년 교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양국 불교의 황금유대가 세계평화의 초석이라던 첫 만남의 정신을 기억하자.

새만금 잼버리서 한국불교 알리자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가 1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8월 1일부터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참여자 수도, 야영장 크기도 역대 최대 최고 규모다. 152개국에서 4만 5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이르는 8.84㎢(약 270만 평) 야영장에 모여 지구촌 청소년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도 참가, 한국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불교연맹은 새만금 잼버리에서 법당과 서브 캠프, 푸드하우스 등을 운영한다.

대회장 내 설치될 잼버리 법당은 참가자들이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단주나 연꽃등 만들기서부터 108배 챌린지 등 체험 활동을 통해 불교전통과 문화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린다면 이보다 더 큰 포교 효과는 없을 것이다.

푸드하우스도 마찬가지다. 생명존중과 자연친화 정신을 담은 사찰음식 사상을 한국음식 문화와 접목시킨다면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잼버리에서 지향하는 스카우트 정신을 담고 불교연맹의 정체성을 고려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종과 문화를 아우른다면 시대적 흐름도 따르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K-컬처 중심에 있는 우수한 한국불교를 자라나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길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가

⑮ 디스토피아 세계의 '택배기사'

모든 디스토피아 서사는 계급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흔히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조지 오웰의 〈1984〉,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자먀찐의 〈우리들〉을 꼽는다.

이 작품들은 모든 것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사회의 폐해를 꼬집고 있다. 〈우리들〉의 주인공은 단일제국에 복무하는 수많은 번호 중의 하나인 'D-503'이다. 단일제국에서는 내밀한 사랑조차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1984〉의 배경이 되는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도 국민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도 계급적인 문제점을 꼬집는 디스토피아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인물들이 숫자로 불리듯이 드라마 속 택배기사들도 숫자로 불리고 있다. 드라마 속 사회는 전체주의를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점에서는 〈1984〉의 오세아니아를 닮았다.

드라마의 배경은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2071년. 난민, 일반, 특별, 코어구역 등 4개의 계급 사회를 만든 것도, 운영하는 것도 천명그룹이다.

코어구역은 고위급 관리, 재벌 등 최상류층이 머무는 구역으로 에어로드라는 초거대 산소공급 장치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특별구역은 지하 5km에 소재한 여러 군 시설이 있는 안전한 지역이다. 일반구역에 배달되는 건조식품이 아닌 일반적인 음식이 제공되지만, 건물 밖에서는 산소마스크를 써야한다.

일반구역은 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택배기사가 산소공급과 식량배달을 책임진다. 주택에는 보안시스템, 수도, 공기생성, 냉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구역 거주자들은 손등에 QR코드가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난민구역은 극빈층의 지역으로 사람들은 노숙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난민구역 사람들의 유일한 꿈은 택배기사가 되어서 일반, 특별구역까지 출입하는 것이다. 난민의 드림을 실현한 인물이 드라마 주인공인 5-8(김우빈)과 사월(강유석)이다. 드라마 속에서 5-8이 이끄는 블랙 나이트는 계급사회를 전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레지스탕스 조직이다.

난민 출신 택배기사로 구성된 이 조직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난민들을 돕는다. 드라마 말미에 블랙나이트의 혁명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 어찌 보면 '택배기사'는 먼 훗날 벌어질지도 모르는 가상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공간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사막화된 드라마 속의 자연환경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구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산소와 식량을 독점하는 천명그룹의 행태에서 영토의 경계 없이 확장하는 신자유주의를 읽을 수 있다.

닐 포스트먼에 따르면, "조지 오웰이 묘사한 세계는 공포와 기만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올더스 헉슬리가 묘사한 세계는 욕망과 말초적인 자극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조지 오웰이 무엇을 금지하는 사회를 두려워했다면, 올더스 헉슬리는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사회를 두려워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엇으로 지배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숙고해볼 일이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